



IMF시대에도 버스는 달린다

IMF때문에 남아들고 모자라던 시내버스 기사들이 남아들고,
사장들은 아툼을 타 버스기사들의 근로조건 악화를 꾀하고 있다. IMF시대
버스노동자들이 느끼는 고민과 겪고있는 애환은 무엇일까?

안건모

동해운수 운수노동자

얼 마 전에 동료 기사 집에 놀러 갔다. 그 집은 김밥도 팔고 술도 팔고 하는 조그만 분식집이었다. 손님이 없어 우리 넷이서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 바둑도 두고 술도 먹고 하니 기분들이 헉헉해졌겠다. 한 사람이 그 집 아들을 보니 용돈을 주고 싶었나 보다. 초등 학교 4학년이나 되었을까 하는 남자 아이였다. 이름을 묻고 그녀석 참 잘 생겼다 몇 학년이냐 하면서 만 원짜리를 꺼내 용돈이나 하라고 주니 그 아이는 고개를 옆으로 저으면서 안 받겠다고 한다.

“괜찮아. 받아 왜, 작아서 그래?” 하면서 한 장을 더 꺼내 두장을 내밀었다. 그래도 그 아이는 받지 않았다. 수줍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동료 기사들이 그 까닭을 물어 보니,

“IMF시대에 만 원짜리를 주시면 어떻

게 해요?”

그 엉뚱한 대답에 동료 기사들뿐만 아니라 그 집 부모들까지 푸하하하! 웃음보가 터졌다. 한참을 웃던 그 동료기사가 천 원짜리 두장을 주니 그때서야 받는 것이다.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아이가 얼마나 IMF를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만 원짜리 용돈을 싫다 하겠는가.

다시 버스운전대를 잡는 사람들

IMF 때문에 시내버스에 그렇게 모자라던 기사들이 남아돈다고 한다. 갑자기 시내버스 기사들 월급이 먹고 살 만치 올라서도 아니요, 근무 조건이 사람 대접을 받을 정도로 좋아진 것도 아니다. 도저히 버스를 해서는 못 먹고 살겠다고 덤프트럭으

마음에 맞지 않는 기사들은 쫓아내기 일쑤다. 조그만 꼬투리만 있으면 일을 주지 않아 만근을 시키지 않는다. 어떤 회사는 한 술 더 떠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을 시키는 변형근로제를 하고 있다.
기사들이 남아도니 실으면 판 데 가라 이거지.

로 빠져나갔던 버스기사들이 IMF 찬바람에 일거리가 없어 다시 몰려온 것이다.

하루는 고양시 원당에서 서울역을 뛰는 915번을 탔다. 915번은 내가 운전하는 147번과 같은 동해운수지만 영업소가 달라 친한 기사들 몇몇을 빼고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

“안녕하세요. 동해운수에 있습니다.” 차를 타면서 ‘동해운수에 있다’고 해야 차비를 내지 않는다. 같은 동해운수 차를 타면서 기사 얼굴을 모른다고 요금을 낼 수는 없잖은가.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다.

“어? 어디서 많이 봤던 분이네요.” “다시 입사했어요. 저 생각 안나요?” “아! 알지요. 그래 그 동안 뭐하셨어요? 얼마나 됐죠?”

얼굴은 많이 본 듯한데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도 아는 체 해야지 모른다고 할 수 있나? 뭐, 전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그만 두었다가 다시 입사했겠지.

“한 3년 됐지요. 덤프 하다가 팔았어요. 일거리가 있어야죠.”

“얼마에 팔았어요?”
“80만원이요.”
“80만원이요?”

우리 기사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조금 뻥튀기를 하는 때가 많다. 혹시 그런가 해서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놀라니 말투가 측 쳐진다.

“그것도 사는 작자가 없어요. 도저히 그렇게 라도 팔지 않으면 안돼요. 하루 이빠이 기름 값은 12만원이나 드는데 일거리 는 없지, 어쩌다 하나 맡으면 3개월 어음 띠거나 끊어주지. 우린 흙 파먹고 살라는 얘기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놈의 IMF가 뭔지.”

“그래도 80만원이면 너무 싸게 판 거 아니요?”

“놔두면 뭘해요? 덤프트럭이 또 자동차 세에다 보험료에다 엄청나요. 놔두면 집안 거덜나요. 그나마 팔린 게 다행이지. 그렇다고 내가 시내버스 좋아서 하나요? 죽지 못해 다시 들어왔지.”

“할부금은 다 갚았어요?”
보나마나 덤프트럭을 현찰로 샀을 리는 없고 분명 할부로 샀겠지 하고 물어 봤다.

“지난 달 끝났어요.”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다는 듯이 잘라 말하고 앞을 쳐다보면서 운전에 열중한다. 더 이상 물어 보지 않아도 그 기사 사정을 알 것 같다.

우리 기사들의 사정 이야기

버스 회사는 기사들이 언제나 모자랐다. 일은 힘들고 임금은 적으니 모자랄 수 밖에 없지. 죽자사자 일해도 먹고살기 힘든 버스를 누가 좋다고 들어오겠는가. 버스 기사 형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우리 기사를 사정을 말해 보자.

버스 기사가 한 시간에 받는 시급은 3,564원이다. 8시간은 28,512원. 한 달이면 기본급이 684,288원이 된다. 거기다 무사고 수당이니 연장근로 수당이니 아간 근로 수당까지 전부 합쳐야 1백 20만원 정도가 된다. 거기에서 갑근세니 주민세 같은 걸 뚝뚝 잘라내고, 우리한테는 아무 짹에도 쓸모없는 고용보험까지 떼고 나면 1백 1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죄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그 돈은 하루라도 빠지지 않아야 되는, '만근'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만근 이런 한 달에 자기 휴일을 뺀 26일을 꽉 채워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 기사들은 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만근을 채우지 못하면 대충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것 봐, 당신들 상여금이 있잖아."

하고 사업주들이 대들 것 같다. 그렇지, 기본급의 600%인 상여금이 있지. 허나 기본급이 작으니 상여금도 자연히 적을 수 밖에 없다. 그것 마저 두 달에 한 번 지급 하면 오죽 좋으면만 치사한 사업주들은 아주 얄궂게 150%씩 나누어 1년에 네 번을

준다. 그게 왜 얄궂냐고? 시내버스는 '이직률'이 많고 정년이 지난 기사를 쓰는 '족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단체협약에 있는 얄궂은 조항으로 이런 기사들 상여금을 잘라먹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이들이 그 조항 내용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상식에도 없는 조항이 있다는 것은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우리 임금을 까먹는 손실 임금이라는 게 또 있다. 빡빡한 운행 시간을 맞추려면 서두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딱지를 떼서 벌금을 내. 그러다 보면 또 면허 정지가 나올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월급도 없다. 그런 걸 손실 임금이라고 한다. 쥐꼬리만한 월급에다 손실 임금까지? 그러니 기사들은 먹고 살려면 자기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모자란 임금을 채워야 한다는 얘기다.

고달픈 우리, 그리고 살판난 자들

그나마 IMF시대 전에는 기사들이 모자라 휴일에도 일은 할 수가 있었다. 아니 어쩔 때는 기사들이 몸이 아파 일을 못 하겠다는 데도 사람없다고 반 강제로 일을 시키던 사업주들이었다. 기사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때도 있었다. 그런 사업주들이 IMF 때문에 살판났다. 열씨구! 나갔던 기사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 입사 원서가 쌓이니 사업주들은 아주 재미있다. 입맛에 맞는 놈(?)단 골라 쓸 수가 있으니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나.

재벌들은 여전히 뒤에서 웃고 즐기고 있는데 왜 우리만 허리띠 졸라매고
참아야 할까.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

마음에 맞지 않는 기사들은 쓰아내기 일쑤다. 조그만 꼬투리만 있으면 일을 주지 않아 만근을 시키지 않는다. 어떤 회사는 한 술 더 떠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을 시키는 변형근로제를 하고 있다. 기사들이 남아도니 싫으면 딴 테 가라 이거지.

IMF를 핑계로 임금도 밀리기 일쑤고 안 주는 곳도 있다. 우리 동해운수만 해도 지난 해 11월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 상여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다. 지난 달에 회사 관리자가 화전 배차실을 들어오기에 회사 동료 기사 한 사람이

“차장님 밀린 상여금 안 주는 거요?”

하고 물으니 대뜸

“정신없는 소리하네. 지금 때가 어느 땐데.”

하고 미친놈으로 몰아 버렸다. 옆에서 듣던 내가 열받아 쏘아 붙였다.

“아니, 빚진이들이 더 큰소리 치네. 다른 테 진 빚은 무서워하면서 노동자들한테 진 빚은 하나도 안 무서운가 보지? 임금도 빚이요, 빚!”

결국 우리회사는 지난해 마지막 상여금 을 50%만 지급했고 어떤 회사는 월급을 절절 끌고 있다. 이번에 임금협상 때가 되었는데 꼼짝마라 이거지. 기사들은 속에서

불이 났지만 어쩔 도리 있나 우선 참는 수밖에.

시민들도 꾹꾹 눌러 참는 건 마찬가지다. 시내버스 요금 한 번 올리려면 사업주들과 '여용 조합'이라는 시내버스 노조 지부가 짜고 '파업' 같은 걸 보여줘야 통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70원을 올려 버렸다. 시민들은 울화통이 터졌지만 어쩌겠나. IMF 시대인데….

재벌과 언론들은 '1달러 모으기 운동', '금 모으기 운동'으로 우리 서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런 운동은 나라경제가 이 꽂이 된 게 우리 탓인가 하는 착각에 사로 잡히게 만든다. 재벌들은 여전히 뒤에서 웃고 즐기고 있는데 왜 우리만 허리띠 졸라매고 참아야 할까.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 ♦♦♦